



JARA NEWS

February 2018, No. 120

from
Japan Automotive Recyclers Alliance
www.jara.co.jp

Published by JARA Corporation
Tokyo Head Office: Shinawa Bldg. 1-2-2-7F
Nihonbashi, Chuo-ku, Tokyo JAPAN 103-0027
Phone: +81 3 3548 3010 / Fax: +81 3 3231 4690



당기의 판매 목표와 지원 방안 등을 공유했다

JARA, 2018년 RPGP 부품 구매 목표 전년 대비 10% 증가, 회원 의식 부여 강화

JARA (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東京都 中央区)는, 2018년 리빌트 부품(RP)·사와 신품 부품(GP)의 구매 목표를 전년 대비 10% 증가로 설정했다. 매출의 진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개수(改修)를 하는 것 외에, 리빌트 부품 판매에 대한 회원의 의식 부여를 강화한다. 각 부품의 수요를 파악한 판매 촉진 캠페인이나 회원과의 스터디 모임도 지속해서 개최해 나간다. 올해는 기타지마 사장이 출선하여 판매 책임자가 되어, 목표를 꼭 달성시키기 위해 진두지휘를 한다.

최근 개최한 '제6회 RP·GP 부품 제공 회사와의 간담회'에서 표명했다. 지난해의 구매 실적은 전년 실적보다 웃돌았지만, 목표 110%에 대해 107%로 미달. JARA는 "해당 월내에 진척 상황을

C02 삭감 수치 (JARA시스템)

재사용부품 사용으로
C02 삭감 효과 참고치
2017년 12월

2, 200t

※일반, 중·대형을 포함한 자동차 수리시, 신품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과 재활용부품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C02 배출량의 차이가 C02 삭감 수치가 됩니다. 일반사단법인 일본자동차리사이클러즈 협회와 와세다대학 환경종합센터가 LCA (전생애 환경평가기법 (life cycle assessment)) 라는 기본 생각에 근거하여 공동 개발하였다.

파악할 수 없으며, 또한 효과적인 캠페인 등의 기획이 부족했다"고 분석하며, 당기는 그 반성을 토대로 각종 시책을 전개해 나간다.

진척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시스템 개수에서는, 리사이클 파트 네트워크인 'ATRS (Automobile Total Recycle System)' 상에서 회사별로 판매 상황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그 시작 시기는 미정이지만, 담당자별 실적의 집계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리빌트 부품의 수요는 높아지고 있지만, 판매에 관해서는 "회원 간에 사정이 조금씩 다르다"(동사는) 것이 실정. 따라서 지속해서 판매하기 위해서는 "노력하는 곳에는 그 나름대로 혜택이 있는 구조를 만들고 싶다"(동)는 생각이다.

JARA 자신의 판매 능력도 강화한다. 동사의 콜센터를 활용하여, 리빌트 부품의 수요가에 대한 판매 제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간다.

올해는 기타지마 사장이 책임자가 되어, 리빌트 부품의 확대 판매에 대응하는 것을 결정했다. JARA회원과의 접점 강화 방안으로 지구회나 스터디 모임을 계속해서 개최하는 한편, "각 회사(협력업체)의 요구도 파악하면서 전체를 복돋워 나갈" 방침이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25일)

JARA, 회원 서포트의 일환 시스템 사용을 연내 무상



지난해는 ATRS시스템을 소개하는 'ATRS지구회'를 실시했다

JARA(일본 자동차 리사이클러즈·얼라이언스, 기타지마 소쇼(北島 宗尚) 사장, 도쿄도 주오구(東京都 中央区)는, 12월 31일까지의 기간 한정으 그룹 회원을 대상으로, 리사이클 파트 네트워크인 'ATRS(Automobile Total Recycle System)'의 시스템 사용료를 무상으로 한다. 2014년의 합병 이후, 회사 운영이 안정된 상태로 이어져 온 것에 대한 환원 방안으로 실시한다. "업계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본부로서 회원의 사업 활동을 서포트하고 싶다"(기타지마 사장)는 마음을 담았다.

매월 3만 5천 엔의 ATRS 시스템 사용료를 사은 가격으로 0엔으로 할인. ELV 모드 사용료, 회선 사용료, 서포트 비용은 그대로지만, ATRS시스템

사용료가 무상이 되는 것으로, 매월 이용요금은 기존의 8만 4천 엔에서 4만 9천 엔이 된다.

동사는 그룹 회원의 생산성 향상, 작업 효율을 높이기 위해 ATRS의 기능 강화를 추진해 왔다. 지난해는 부품 취득 설정은 매출 금액이나 개수, 재고 회전을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시스템 측이 생산하는 재활용 부품을 자동으로 나타내는 '부품 취득 설정'과 차량 검사증의 QR 코드를 판독하여 자동으로 등록하는 '자동차 검증 QR 판독'기능, 순정 부품의 특성을 서포트하는 '순정 부품 가이드'를 추가했다.

또한, 전국에서 신기능 등을 소개하는 'ATRS 지구회'도 개최하는 등, 새로운 이용 촉진을 호소하고 있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10일)

2017년 ELV 인수 대수 3년 만에 증가, 순조 로운 신차 판매 뒷받침

2017년(달력상 1~12월)의 사용 후 자동차(ELV)의 인수 대수가 3년 만에 전년 실적을 웃돌았다. 자동차 리사이클 촉진 센터(JARC)의 정리에 따르면, 2017년 실적은 전년 대비 7.7%가 증가한 327만 7142대였다. 1~12월까지 모든 달에 전년 초과를 기록하고 있으며, 높은 가격으로 추이 되는 고철스크랩 시세나 2년 만에 500만 대를 넘어선 순조로운 신차 판매가 ELV의 발생량을 뒷받침했다. 12월 한 달 실적은 전년 동월 대비로 9.2%가 증가하여 27만 4997대였다.

먼저, 3년 만에 플러스 전환을 뒷받침한 것이 높은 가격으로 추이 되는 자원 가격이다. 현재의 고철스크랩 시세는 톤당 3만 7천 엔을 넘고 있으며, 적정치로 여겨지는 2만 5천 엔을 크게 웃돌고 있다. 시세의 상승 국면은 2016년도 하반기부터 이어지고 있으며, 대형 전기로 기업의 매입 가격은 2017년 12월과 2016년 12월을 비교하면 1만 엔 이상이나 높은 상황이다.

제작년은 자동차 재활용 관련 사업자의 폐업, 도산이 잇따랐지만, 작년은 자원 가격이 사업자의 수익을 뒷받침하는 경우가 있어, "도산했다든지, 회사를 닫는다든지, 무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게 되었다." (부품 유통 단체 간부)

또 다른 하나의 상승 요인이 순조로운 신차 판매이다. 2017년의 신차 판매 대수는 전년도 대비 5.3%가 증가한 523만 4166대로 2년 만에 500만대를 넘어섰다. 일반적으로 ELV가 발생하는 시기는 신차 판매로부터 2,3개월 정도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로 인해, 전년 실적 초과가 계속된 신차 판매의 영향을 받는 형태로, ELV 인수 대수도 2016년 11월 이후, 13개월 연속으로 플러스 실적이 이어지는 모양새가 되고 있다.

JARC는 2017년도의 ELV 인수 대수에 대해 305만 대를 상정하고 있지만, 이 속도로 추이된다면 330만 대에 달할 가능성도 있다. 단, ELV의 발생량을 중장기적인 시점에서 본다면, 활발한 외수를 배경으로 착실히 추이 되는 중고차 수출의 영향도 있어 감소세를 보일 전망이다.

재활용 관련 사업자는 현재 상황에서 고가 안정이 이어지는 자원 가격과 신차 판매 등으로 연동하는 ELV의 발생량을 주시하면서, 올해는 "장래를 위한 사업 기반을 착실히 준비하는 해가 된다"(업계 단체 톱)고 지적한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18일)



학생들 스스로가 방문자에게 해설. 프레제이션 능력의 향상으로도 이어진다

카를 전시하는 무대의 역할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비 업계를 짊어질 젊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활약하기 위한 발판 마련에도 이바지하고 있다.

오구라학원 도쿄자동차대학교(小倉学園 東京自動車大学校)는 'AE86형 스프린터 트레노'의 리스토어 작업에 임했다. 차량 리스토어는 평상시의 수업 커리큘럼에는 없을 뿐만 아니라 끈기가 필요한 평범한 작업이 많다. 이로 인해, 작업 과정에서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할 경우는 학생들이 서로가 작업 부분을 교대하는 등 기분 전환도 도모하면서, 팀플레이로 작업을 추진하는 중요성을 배웠다.

일본 자동차대학교(日本自動車大学校)가 커스텀 카의 전시에 주력하는 것은 "방문자와 교류하는 것으로 직접 목소리를 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설명할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취업 후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도쿄도 자동차대학교(トヨタ 東京自動車大学校)는 여성의 눈높이를 중요시하고 있다. 학교는 바디크라프트과(Bodycraft科)에 소속된 여학생의 눈높이를 채용한 커스텀 카를 매년 출품하고 있다. 이러한 대응이 지망 동기가 되는 듯하며, "디자인도 배울 수 있다는 점에 끌려 입학했다"는 케이스도 있다. 최근엔 여학생이 증가한 점도 있어, 여성의 아이디어를 반영한 차량을 출품하는 학교도 증가하고 있다.

나카니혼 자동차단기대학(中日本自動車短期大学)은, 교원이 13년 전에 제작한 차량을 차체전공과(車体専攻科)의 학생들이 리메이크했다. 담당 교사와 학생은 "교과서에는 실려 있지 않은 작업을 실천적으로 배울 수 있었다"고 말하는 등 오토 살롱은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이 되고 있다.



도쿄도 자동차대학교의 여학생이 디자인했다.여성의 눈높이로 제작한 커스텀 카도 증가하고 있다

유니크한 대응을 한 것은 시즈오카 공과자동차대학교(静岡工科自動車大学校). 올해는 바디디자인과(Body Design科)의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전교생이 투표하여, 베이스가 되는 차량을 결정한다는 새로운 대응 방안을 실시했다. 오토 살롱에 직접 관련되지 않는 학생들에게도 커스텀 카와 이벤트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고 있다.

파워 트레인의 전동화와 차량 기술의 고도화, 첨단 안전 기술의 보급 등, 정비 업계를 둘러싼 환경은 크게 변화하고 있다. 정비 작업이 수리에서 교환으로 움직여 가는 가운데에서, 학생이 커스텀 카를 처음부터 제작한다는 것은 물건 만들기의 관점에서도 중요하다. 오토 살롱에 출품이 물건 만들기 일본의 부활을 위한 일조가 되는 것도 기대된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19일)

도쿄 오토살롱, 정비학교도 평상시의 성과 피로

기술 습득과 인재 육성 등에도 유효 -. 12~14일에 마쿠하리 멧세(Makuhari Messe, 幕張メッセ) (지바현 지바시 미하마구(千葉県 千葉市 美浜区))에서 열린 국내 최대의 커스터마이징 이벤트 '도쿄 오토살롱 2018'에 많은 자동차 정비 학교가 출품했다. 각 학교는 학생이 커스텀 카의 제작을 담당함으로써 기술력 향상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회장에서 학생 자신이 설명을 담당하는 일원으로 손님을 맞이함으로써 인간관계적 기술(Human Skill)의 습득으로도 이어진다. 오토살롱은 단순히 커스텀



반전 공세 분위기에 물을 끼얹을지도 모른다(하노이 시내의 자동차 판매점)

베트남의 수입차 규제, 일본계 자동차 각사가 곤혹

베트남 정부가 연초부터 도입한 수입차 규제에 일본계 자동차 업체들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규제의 세부 사항이 정해지지 않고 있어, 베트남에 대한 수출은 실질적으로 정지. 관세 철폐 효과로 판매 증가가 기대되는 신차 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경제산업성은 베트남 정부에 규제의 도입 전부터 재검토를 제의해 왔으며, 대사관 등을 통해 정보 수집을 서두르며, 미국 등과 더불어 세부 규칙의 조기 공표 및 규제의 재검토를

촉구할 방침이다.

베트남 정부가 도입한 것은 116호, 125호로 불리는, 수입 사업과 관세 혜택을 정한 법령. 수입 시에 타 국가의 정부가 발행하는 품질 보증 인가증 외에도, 수입 로트(1척)와 차량 사양별로 안전 성능 검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 부품에 관해 베트남에서 생산할 수 없는 부품의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수입처에서의 총생산 대수가 6개월로 8천대 이상, 1 모델당 3천 대 이상으로 사용되는 부품' 등,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다.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업체는 몇 사 없을 정도로, 부품 수입에도 실질적인 제한이 부과된다.

새로운 규제의 배경에는,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역내에서 무역 자유화를 추진하는 경제 공동체(AEC)에 베트남이 가입하여, 1일부터 자동차 관세(승용차일 경우 30%)를 철폐한 것이 있다. 관세 철폐를 계기로 태국 생산 등 수입차의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공급 사슬(Supply Chain, 공급망)이 취약한 베트남의 자동차 산업을 직격할 것이라는 불안이 베트남 정부에 있다.

정령에 근거하여 세칙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계 업체 각사는 대응에 고심하고 있다. 토요타 자동차는 베트남 수출용의 '야리스' '하이락스' 등의 수출을 정지. 미쓰비시 자동차와 마쓰다는 '파제로 스포츠'와 'BT50' 등 베트남 수출용의 태국 생산을 중지했다. 관세 철폐를 계기로 'CR-V'를 현지에서 녹다운(Knock Down, 부품 수출 후 현지 조립) 생산에서 태국 수출로 전환한 혼다도 수출을 중지하며, 태국 공장의 생산 조정으로 들어갔다. "세칙이 미공개이기 때문에 통관이 안 되며, 대책을 세울 방법이 없다"(홍보부)고 당황하고 있다.

경제산업성은 정령의 초안 단계에서 내용을 문제로 삼아, 수차례에 걸쳐 재검토를 제의해 왔다. 세코 히로시게(世耕 弘成) 경제산업성 장관은

작년 11월 APEC 각료회의에서 아인 상공 장관에게 직접, 정령의 수정을 요청했으며 그 외에, 아인 상공 장관이 이번 달 5일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에도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작년 12월의 세계무역기구(WTO) 회의에서도 미국이나 태국과 함께 베트남에 수정을 요청했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의 반응은 별로 없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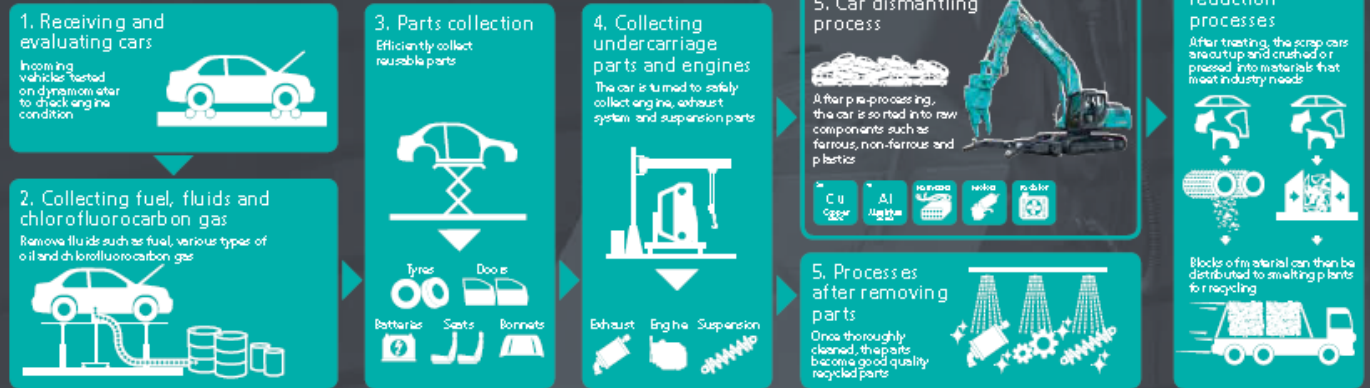
베트남의 2017년 신차 판매 대수(수입차 포함)는, 27만 2750대. 처음으로 30만 대를 돌파했다. 전년보다 10.4%가 줄었다. 특별소비세의 인하와 관세 철폐를 겨냥한 매입 위축 현상이 있었다고 보이며, 올해의 신차 시장은 상승 추세가 될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다. 각사는 정령의 초안 단계에서 이러한 상황을 상정하여, 베트남에서의 재고를 확대 증가시켰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판매에는 커다란 지장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지만, 이러한 상황이 길어지면 신차 판매의 반전 공세 분위기에 물을 끼얹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어, 조기의 사태 타개가 요구된다.

(일간 자동차신문 1월 20일)



Dismantling process flow chart

How the Car Dismantling machine works



The Evolution of car dismantling industry by Kobelco

Four times* the vehicle dismantling capability compared with hand dismantl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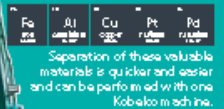
*In one day (Kobelco test figure)

15 vehicles > One operative working by hand.

60 vehicles > One operative in a Kobelco Car Dismantling machine.



Improved recovery rate of rare earth metals



SK210D



SK210D



SK 135SRD



コベルコ建機株式会社
www.kobelco-kenki.co.jp/

For Japan

成都神鋼工程机械(集团)有限公司
www.kobelco-jianji.com/

For China

(주)삼정건설기계
www.samjung-kenki.co.kr/

For Kore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U.S.A. INC.
www.kobelco-usa.com/

For North Americ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AUSTRALIA PTY LTD
www.kobelco.com.au/

For Australia

KOBELCO CONSTRUCTION MACHINERY EUROPE B.V.
www.kobelco-europe.com/

For Europe

FAIR FRIEND ENTERPRISE CO.,LTD.
www.ffg-tw.com/

For Taiwan